

백석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백석 문학의 원형적 특성 연구

남 지 현*

차 례

- | | |
|-------------------------|----------------------|
| 1. 백석 문학에서 소설의 의미 | 1) 민중적 삶의 형상화 |
| 2. 초기 소설 작품들의 특성 | 2) 토속어의 소환과 '유희' |
| 3. 초기 소설과 백석 문학 전반의 친연성 | 3) 물활론적인 의인화 |
| | 4. 백석 초기 소설의 작가론적 의의 |

국문초록

백석의 문학 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는 백석 연구의 르네상스라고 지칭해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백석 문학의 초기작에 해당하는 소설에 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이는 초기 소설들이 나타내는 미적 특성이 당대 소설이 거둔 성취에 비해 소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연구는 미적 자질뿐 아니라 작가론의 관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백석의 소설들은 이후 백석 문학 전반에서 나타나는 원형적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백석의 초기 소설에 해당하는 <그 몸과 아들>, <마을의 유희>, <닭을 채인 이야기>를 대상으로 작품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졸업

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 작품들의 특성이 이후 백석의 문학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백석의 소설들은 민중적 삶에서 미적 대상을 선택하고, 이들 대상에 대해 공감에 바탕을 둔 애정을 나타낸다. 또한 외래적인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 본연의 삶의 모습들을 간직하고자 한다. 토속어를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민중적 삶의 현실성을 강화하고, ‘여음’이란 독특한 서술방법을 통해 판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적 표현의 전통을 소설 속에 구현해 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의인화된 인물들을 설정하여 작품의 흥미를 배가한다.

이와 같은 백석 소설의 특성들은 이후의 문학 활동, 즉 초기 시와 후기 시, 북한에서의 아동문학과 시작(詩作) 활동 등과 연결되면서 다시 활성화된다. 이에 본고는 백석의 문학 활동 시기를 다섯 시기로 나누고 그 가운데 삼수로 현지 파견을 나가기 이전까지의 문학적 특성들이 초기 소설작품들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밝혀보이고자 한다. 그 결과 백석의 문학 활동은 삼수 파견 이전, 아동문학에 집중하던 시기까지를 통일적인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외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단층이 생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백석, 백석 소설, 백석 문학, 그 모와 아들, 마을의 유화, 닭을 채인 이야기

1. 백석 문학에서 소설의 의미

백석(본명 백기행, 1912~1997?)¹⁾은 한국문학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인이다. 한때 재북 문인이라는 이유로 문학사적 논의에서 배제되었

1) 백석의 몰년은 1997년이란 송준의 주장과 함께 명확하지 않다는 이동순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물음표를 남겨둔다.

으나, 1987년 월북·재북 문인에 대한 연구가 자유로워지면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²⁾ 백석의 작품은 당대에도 주목을 받은 바 있으나³⁾ 현재 백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당대의 관심을 훨씬 뛰어 넘는다. 백석은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손꼽히기도 했으며, 문학연구의 영역에서도 그의 작품에 대한 왕성한 연구물들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⁴⁾ 최근에는 기존 연구의 맹점과 단절된 지점들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들까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⁵⁾

백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특히 시에 집중되어 있다.⁶⁾ 시 세계의 특성을 다루는 초기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새로운 방법론에 근거해 개별 작품을 면밀하게 살피는 집중적인 연구로 심화되고 있다.⁷⁾

-
- 2) 월북 및 재북 문인들에 대한 해금 조치는 제1차 1976년, 제2차 1987년, 제3차 1988년 3월, 제4차 1988년 7월에 이루어졌는데, 한설야, 이기영, 조영출, 백인준, 홍명희를 제외한 모든 문인 및 그들의 해방 전까지의 작품이 해금되었다. 한예찬, 『백석 시에 나타난 동심과 설화성 연구』, 『동화와 번역』21,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1, 411-429쪽.
 - 3) 대표적인 당대의 평가는 김기림, 박용철, 오장환 등의 평가가 있다.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1.26; 박용철, 『백석 시집 사슴 평』, 『조광』, 1936.4; 오장환, 『백석론』, 『조광』, 1937.4.
 - 4) 2018년 3월 현재 KERIS의 검색에 따르면 백석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논문은 600편 이상, 학술지 논문은 1100편이 넘는다.
 - 5) 김문주, 『백석 문학 연구의 현황과 문학사적 균열의 지점』, 『비평문학』 45, 한국비평문학회, 2012; 이명찬, 『백석 시집 『사슴』의 시편을 읽는 또 하나의 방법』,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이승원, 『백석 시 연구의 유의점과 과제』, 『어문연구』 4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이동순, 『백석 시의 연구 쟁점과 왜곡 사실 바로잡기』, 『실천문학』 여름호, 실천문학사, 2004; 이승원, 『백석 시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 6) 대표적인 초기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두석, 『1930년대 시의 표현에 관한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김명인, 『백석시고』, 『전병두 박사회갑 기념논총』, 1983; 고형진, 『백석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3; 이승원, 『풍속의 시화와 놀변의 미학』,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 7) 김수경·이경수, 『백석 시 「고야」에 나타난 설화적 특성』, 『어문논집』 45, 중앙어문학회, 2010; 고형진, 『백석 시에 쓰인 ‘~이다’와 ‘~것이다’ 구문의 시적 효과』, 『한국시학연구』 14, 한국시학회, 2005; 이혜원, 『백석 시집 『사슴』에 나타난 행과

아울러 북한에서 제출된 동시와 동화시, 아동문학평론 등 백석의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⁸⁾ 번역 문학에 대한 연구로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⁹⁾ 이에 비해 정작 백석 문학의 출발점인 소설에 대한 연구는 미답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희박하다.¹⁰⁾ 백석의 산문 전반을 다룬 연구와 단편적으로 소설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는 무엇보다 소설작품이 이루어낸 성취 자체가 문학비평적 관점에서 그다지 뛰어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작가론적 관점에서는 초기 소설이 이후의 창작 활동 전반의 방향을 조정하는 원형에 해당하는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연의 양상과 기능, 『한국시학연구』 85, 한국시학회, 2012.

- 8) 신기훈, 「백석의 동화시 연구」, 『문화와 융합』 20, 문학과언어연구회, 1998; 박명옥, 「백석의 동화시 연구」, 『비교한국학』 28,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김제곤, 「백석의 아동문학연구 - 미발굴 작품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4,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7; 채해숙, 「백석 동화시에 나타난 전통의 계승과 변용」, 『한국말글학』 25, 한국말글학회, 2008; 강정화, 「해방을 전후로 한 백석 시의 이행 양상 연구 : 백석의 번역문 「아동문학론 초」와 동화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3,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 9) 배대화, 「백석의 푸시킨 번역시 연구」, 『슬라브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배대화, 「백석의 러시아 문학 번역에 관한 소고 : 남·북한의 평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31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이경수, 「마르샤크의 『동화시집』 번역을 통해 본 『집계네 네 형제』 창작의 의 미」, 『비교한국학』 23(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이상숙, 「백석 번역시 연구를 위한 시론 : 북한 문학 속의 백석Ⅲ」,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 이상숙, 「백석의 번역 작품 「자랑」, 「숨박꼭질」 연구 : 북한문학 속의 백석Ⅳ」, 『한국근대문학연구』 27호, 한국근대문학회, 2013; 정선태, 「백석의 번역시」, 『근대서지』 2, 근대서지학회, 2010.
- 10) 강외석, 「일제하의 사회 변동과 문학적 대응 - 백석의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배달말』 26호, 배달말학회, 2000; 고희진, 「백석의 소설과 수필의 판본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 송기섭, 「백석의 산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9; 한명환, 「백석 소설 연구 - 소설 내용 및 형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2001; 줄고, 「백석 소설 「그 몸과 아들」 연구」, 『현대소설연구』 69, 현대소설학회, 2018.

작가론적 관점에서 백석 소설의 의의를 살펴볼 경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연구 쟁점인 ‘백석의 문학 활동이 지닌 단절과 통일성의 문제’¹¹⁾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은 북한에서의 백석의 활동이 어느 정도 규명되면서 부각된 바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의 백석 문학이 그 이전까지의 백석 문학과 비교할 때 이질적 요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백석의 문학 세계를 조망할 때 이들 후반기의 활동까지 포괄하여 단일한 전체상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명확히 단절된 양상으로 파악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백석의 문학 활동을 시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백석 문학의 앞자리에는 1930년과 1935년에 창작된 세 편의 소설이 있다. 이를 첫 번째 시기라고 본다면 두 번째 시기는 1935년 <정주성>의 발표로부터 『사슴』의 상재에 이르는 초기 시 창작 시기, 세 번째 시기는 『사슴』 발간 이후 해방 이후 허준의 주선으로 <남신의주유동박씨봉방>를 발표했던 후기 시 창작의 시기, 네 번째 시기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북한에서 동시와 동화시, 아동문학평론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관여하던 1950년대 후반의 시기, 마지막 시기는 1959년 1월 삼수로 현장 파견¹²⁾된 이후 시를 발표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¹³⁾

11) 이와 같은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정화, 「해방을 전후로 한 백석 시의 이행 양상 연구 : 백석의 번역문 「아동문학론 초」와 동화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3,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김진희, 「시인 존재론의 탐구에서 동화시에 이르는 길」,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이상숙, 「북한 문학 속의 백석 1」, 『한국근대문학연구』 17, 한국근대문학연구, 2008; 장정희, 「분단 이후 백석의 동시에 관하여」, 『서정시학』 25(3), 서정시학, 2015.

12) 백석의 현장 파견 일시는 1959년 1월 18일자 『문학신문』에 게재된 「문학신문 편집국 앞」이란 제목의 보고문을 미루어 확인할 수 있다. 백석은 1월 10일자로 편지를 보내며, 본문에서 ‘삼수로 와서 한 주일’이 지났음을 알리고 있다. 안도현, 『백석 평전』, 다산책방, 2014, 364쪽.

13) 일반적으로 백석 문학을 초기 시, 후기 시, 북한에서의 문학 활동 등으로 구분하

백석의 문학 활동은 다섯 시기동안 다소 이질적인 요소들을 드러내면서 이어졌다. 그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일적인 전체로 아우를 수 있는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강제된 명백한 단절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다른 장르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균형적 시각에서 백석 문학의 전체상을 조망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백석 문학의 통일적인 전체상을 주장하거나 명백한 단절이 있다고 쉽게 결론내리기보다는 백석 문학의 첫 번째 시기에서 네 번째 시기까지를 단일한 자장 안에서의 심화와 확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백석의 초기 문학 활동인 소설 속에 이미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시기에 이르는 다양한 문학적 모색들이 원형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백석의 초기 소설인 <그 몸과 아들>, <마을의 유화>, <닭을 채인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¹⁴⁾ 이들 작품 속에 산재된 문학적 특성들이 이후 백석의 시와 동시, 동화시, 아동문학평론 등과 연결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석의 문학이 지닌 통일성과 단절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기 바란다.

2. 초기 소설 작품들의 특성

백석의 소설 가운데 <그 몸과 아들>은 1930년 조선일보 신년현상문

나 본고에서는 소설 창작과 북한에서 현지파견 이후의 활동을 세분하고자 한다. 소설은 장르적 특성에 따른 것이며, 현지 파견을 구분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특성 때문이다.

- 14) 백석의 소설로 더러 『사생첩의 삽화』(『사진순보』, 1942.2.1)를 거론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초기작으로서의 소설 작품 세 편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사생첩의 삽화』를 체험에 바탕을 둔 ‘에피소드 위주로 구성한 수필’로 보는 관점(안도현, 『백석 평전』, 다산책방, 2014, 266쪽)도 존재하기에 이 작품의 장르에 대한 논의는 다른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면밀하게 탐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에 당선된 작품이다. 이 작품의 당선 이후 백석은 조선일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동경의 청산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게 된다. 귀국 후에는 조선일보사에 취직하고 1935년 8월 30일 <정주성>을 『조선일보』에 발표하여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그러나 백석은 시 등단 전후로 소설 <마을의 유화(遺話)>와 <닭을 채인 이야기>를 발표한 바 있다.¹⁵⁾ 다시 말해 시로 등단하기 이전 이미 소설로 자신의 문학적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 세 편의 소설은 작품마다 격차가 있기는 하나 당대의 한국 단편소설이 이룬 성취와 비교할 때 문학적 성취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평적 관점에서의 평가 이전에 백석이란 탁월한 시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작품 활동의 전체상을 재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편의 소설이 지닌 의미는 적지 않다. 세 편의 소설은 본격적인 작품 활동 이전의 아마추어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백석의 문학 활동 전반을 가늠하게 하는, 기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백석 소설의 의미는 백석의 시가 토속적인 세계를 방언에 기대어 자신만의 독특한 ‘놀이’로 형상화했다는 평가¹⁶⁾에 대한 근거로도 볼 수 있다. 백석의 소설과 시는 명확한 장르 구분 하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활동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지평 위에 놓인 상이한 형식적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전쟁 이후 북한에서의 문학 활동이 아동문학으로 경도된 것 역시 백석 소설에 내재된 몇몇 장치들을 통해 그 연결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의 소설들은 백석 문학의 단층을 이어주는 원형질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백석 소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가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15) 고희진,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345쪽에 수록된 백석 연보 및 김재용, 『백석 전집』(개정증보판), 실천문화사, 2011, 633-638쪽에 수록된 작품 연보 참조.

16) 이승원, 『풍속의 시화와 놀이의 미학』,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타자와 공동체의 관계망 속에서 정체성을 살피고자 하는 한명환의 연구¹⁷⁾와 공동체의 훼손과 복원에 초점을 둔 강외석의 연구¹⁸⁾, 산문의 관점에서 백석 소설을 고찰한 송기섭의 연구¹⁹⁾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주제 탐구라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어 소설들의 독특한 미적 특성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다.

백석의 실질적인 등단작인 <그 母와 아들>은 과부의 치정(癡情)을 다루고 있다. 제목 <그 母와 아들>의 주인공 ‘母’는 병으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4남매를 키우고 있다. 그 4남매 중 열여덟의 장대한 아들 ‘대감’이 있다. 과부는 주위 이웃들의 조롱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욕의 충동’과 ‘경제적 필요’에 의해, 아들 볼 생각에 가득 찬 난봉꾼 ‘양고새’와 정분이 나고, 결국은 아이까지 갖게 된다. 양고새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하고자 임신한 과부에게 새로 외파로 떨어진 곳에 집을 얻어주고, 결국 과부는 거처를 옮기고 딸을 낳는다. 분을 이기지 못한 대감과 대감의 할머니는 양고새와 한판 대거리를 하고, 결국 과부와 가족들은 원래의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 살림을 합쳐 살게 된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진 미적 장치는 소문의 기능이다. ‘소문’의 모티프는 <그 母와 아들>에서 작품의 도입부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종결에 등장하여 서사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과부와 아들, 시어머니, 양고새 등 주요한 등장인물 모두 소문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소문에 대응하는 의식과 행위를 통해 서사를 추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은 인물의 갈등이 중심축을 형성하나 소문을 생성하고 유통시

17) 한명환, 『백석 소설 연구 - 소설 내용 및 형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2001.

18) 강외석, 『일제하의 사회 변동과 문학적 대응 - 백석의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배달말』 26호, 배달말학회, 2000, 97-127쪽.

19) 송기섭, 『백석의 산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9, 265-285쪽.

키는 마을 공동체로서의 동리라는 배경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의 의미는 과부가 동리에서 ‘개천다리’로, ‘해변의 농막’으로 장소를 이동시킴으로써 소문의 공동체와 거리두기를 감행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²⁰⁾

그리고 이 작품은 주인공인 과부의 내적 갈등과 함께 <그 몸과 아들>이란 제목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듯 ‘모와 아들’의 갈등, 아들로 대변되고 있는 나머지 가족들과의 갈등이 서사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따라서 과부와 마을 사람들의 외적 갈등이 중심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소설의 의미가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놓여 있음을 확인케 해 준다. 이로 인해 작품의 주제 의식 또한 새롭게 조명될 여지를 갖는다. 작품은 욕망에 허덕이는 인물이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것으로 끝맺는 대신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훼손된 삶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소문의 공동체 역시 승인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이 작품에서 작가는 봉건적인 윤리로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기보다 그러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삶의 면면함을 보여주고 있다.²¹⁾

백석의 <그 몸과 아들>이 ‘모와 아들’의 대립과 갈등, 갈등의 운명적인 해소를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의 유화>는 제목에서 보듯 배경과 배경의 한 구석에 존재하는 이야기 한 자락을 담고 있다. 비극적인 정황에 처한 인물들을 통해 공동체의 붕괴를 신랄하게 부각시키면서도 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에 밀착된 채 결코 그 시선을 공동체로 확장해 가지는 않는다. 또한 <마을의 유화>는 비교적 안정적인 서사 구조에 기대고 있는 <그 몸과 아들>에 비해 매우 실험적인 작품이다. 양아들과 며느리가 밤중에 도망을 해버린 나머지 아흔에 가까운 ‘덕항영감’과 여든을 넘은 ‘저척노파’는 겨우 겨울을 나고 있다. 너무나 춥고 굶주린 나머지 따뜻한 누더기가 되고 싶기도 하고, 배고픈 세상을 모르는 쥐

20) 이상의 논의는 줄고, 『백석 소설 「그 몸과 아들」 연구』, 『현대소설연구』 69, 현대소설학회, 2018, 146-156쪽 참조.

21) 『그 몸과 아들』의 주제의식에 대한 논의는 위의 글, 156-158쪽 참조.

가 되고 싶기도 하나, 그것들이 자신들보다 한층 높은 존재이기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래서 두 노인은 죽고자 하나 ‘죽음이 영감 노파를 피해 살아가는 까닭’에 죽을 수도 없다. 죽지 않는 대신 작은 죽음, 곧 노파는 눈이 멀고 영감은 허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마침내 영감은 섬돌을 내려서다 굴러 떨어져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고, 새 봄이 와도 비애와 절망 속에서 고스란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양아들네 부처는 덕항영감과 지척노파를 쥐나 누더기로 여겼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말만한 옷간 냉방에 이 구석에는 누더기가 꿇그리고 있고 저 구석에는 쥐들이 살림을 하는 곳에 영감과 노파를 둔 것이다. 덕항영감과 지척노파가 쭈그리고 앉은 것이나 꾸부러 치고 누운 것을 두고는 누구나 누더기공제기라고 보았으나, 그리고 사람 먹던 것을 쥐가 먹어도 질색하는 세상에서 영감과 노파는 쥐 먹던 것을 먹고도 아무 말이 없었으나, 이상한 일인지 모른다, 아무리 해도 사람은 누더기나 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늙은 영감 노파가 누더기나 쥐가 되기에는 몇 해나 걸리는지 모르나 삼십 년 쯤을 가지고는 사람이 누더기나 쥐가 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하였다. 영감 노파는 얼마나 구석에서 말이 없는 누더기가 되고 싶었는지 모른다. 자배기 속의 쥐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191쪽)²²⁾

<마을의 유화>의 도입 부분이다. 백석이 시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공동체의 온기 어린 복원과 스러져가는 존재에 대한 애절한 연민, 세상에 적응하지 않는 존재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 기품을 표현한 것과 달리 이 소설 작품의 도입부는 매우 비참한 현실을 담고 있다. 덕항영감과 지척노파라는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인물들 때문이 아니라 이 인물들을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는 서술자의 냉연한 시선으로 인해 현실은 매우 참담하게 그려지고 있다. 양아들이 쥐나 누더기로 여겼기에 그곳에 영감과

22) 본고에서 작품의 본문 인용을 인용할 경우 김재용의 『백석 전집』(실천문화사, 2014년 판)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인용면수를 괄호 안에 병기함을 밝힌다.

노파를 버렸으며, 겉보기에 영감과 노파는 누더기나 쥐와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 그것들이 얼마나 되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늙은 영감 노파가 누더기나 쥐가 되기에는 몇 해나 걸리는지 모르나 삼십 년쯤을 가지고는 사람이 누더기나 쥐가 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하였다.’는 서술적 개입은 서술 대상과의 거리를 분명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풍자적인 어조까지 엿볼 수 있게 만든다. 이 같은 서술자의 어조는 백석 시에 드러나는 어조와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앞의 두 소설이 갈등과 내면 심리를 중시한 것과 달리 <닭을 채인 이야기>는 사건이 구성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시생이네 닭이 지평영감의 차조발을 해집어놓는 것을 참다못해 지평영감이 돌을 던져 두 마리를 죽이고 만다. 이 앙갚음으로 시생이 밤중에 영감의 닭장에 들어가 닭 두 마리를 죽여 가지고 나와 산 밑과 잣더미 아래에 각기 버린다. 아침이 되어 닭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영감이 찾아나서나, 찾기도 전에 한 마리는 여우가, 또 한 마리는 밥을 얻으러 나온 바발할멈의 눈에 띄어 넉넉한 아침 요기가 되고 만다. 결국 지평영감은 ‘닭의 뉘’이 부린 수작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발을 망친 것을 몰라주는 하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 작품에서는 무엇보다 작품에 등장하는 닭들의 의인화가 눈에 띈다. 의인화된 닭들은 시생과 지평영감과 함께 서사를 구성하는 인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 그 두 인물들보다 한층 더 심리와 정황을 표현하는 주체로 설정되고 있다.

먼저 나이 많은 것들이 화를 내렸다. 누군지 한 번 담대하니 화를 친다. 그리고 꾸꾸 하고 “모두들 구석으로 가 박혀.”라고 소리를 친다. 구석에 박혀서 경위 무딘 누구 하나가 “우리 영감대긴 아닌가.” 하고 묻는 걸 삼한 갱가도리의 사촌이 “이건 혼 나갔나.”하고 뺄 닷질렀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나이라고 문 가까이 목숨을 내대고 영겨주춤하고 섰던 늙은 수탉이 쭈그리고 앉으며 “이놈의 영감대기레 죽었나?” 하고 아직도

바깥세상의 일을 모르고 나오지 않는 디핑영감장을 두고 글탄하였다.
(210쪽)

위 인용에서처럼 닭들은 돌연 서사의 주체로 부각된다. 서술의 방식 면에서도 닭들의 동작에 대한 묘사와 생생한 대화를 통해 소박한 우화를 넘어서는 의인소설의 양태를 띠고 있기까지 하다. 이를 통해 작품은 단순한 플롯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가며 유머러스한 해학을 빚어낸다.

<그 몸과 아들>이 인물의 내적 갈등과 인물들 사이의 외적 갈등을 중심축으로, <마을의 유화>가 인물의 내면 심리의 장황한 제시와 서술자의 개입과 평가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면 <닭을 채인 이야기>은 닭들이 주요 인물처럼 기능하도록 탈바꿈시킴으로써 서사의 풍부함을 얻어내고 있다. 이처럼 백석의 세 작품은 동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질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미처 정착되지 못한 작가의 식과 저마다의 다채로운 실험적 서술방식을 통해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 세 작품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요소들은 이후 백석의 문학 활동 전반에 내재된 채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며 백석 문학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작동하고 있다.

3. 초기 소설과 백석 문학 전반의 친연성

백석의 초기 소설은 세 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세 작품에는 향후 백석의 문학 활동 전반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이 산재해 있다. 백석 소설과 백석의 문학이 명확하게 분리된 단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서 보이는 독특한 자질들이 이후 작품들 속에서 다시금 활성화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백석의 초기 소설과 백석 문학 전반은 언뜻 눈에 띄지

않는 친연성 속에 연결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작가의식의 민중적 지향이나 토속어의 사용과 같이 백석 문학 속에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물활론적인 의인화의 경우처럼 잠복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이후의 동화시나 동시에서 만개하는 경우도 있다.

1) 민중적 삶의 형상화

백석의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미적 대상 자체가 민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 몸과 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과부의 이야기이며, <마을의 유화>는 버림받은 늙은 노부부의 이야기이다. <닭을 채인 이야기>의 경우 처연함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나 역시 평범한 서민들이 아웅다웅하는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마을의 유화>에 나타나는 형상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이들 작품에 드러나는 고통의 근원은 존재론적이기도 하며, 사회적 현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 몸과 아들>에 등장하는 과부와 그 가족은 남편 혹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더욱 곤궁한 삶에 직면하며 가난과 성적 욕망이 서로 중첩된 가운데 사건을 추동한다. 가난이란 사회적 현실과 욕망이란 존재론적 동인이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유화>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인 부부는 늙었다는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자신들을 버리고 달아나버린 양아들과 며느리의 부양을 받지 못해 초래된 사회적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

다만 이들 소설이 민중적 현실을 미적 대상으로 그려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그 대상들에 주제의식을 부여하는 양상은 다소 상이하다. <그 몸과 아들>은 주제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 한층 명확하다. 이 소설은 그릇된 욕망으로 인한 일탈보다 가장 근원적인 가족 공동체의 포용과 승인, 재결합으로 봉건적 윤리의식에 의해 쉽게 중단될 수 없는 삶의 면면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마을의 유화>, <닭을 채인

이야기>의 경우 그 주제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다. <마을의 유화>는 거의 자연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고통 그 자체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론적 상황으로 내몰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새 세상이 영감 노파에게 온 뒤로 이 산골의 물과 바위와 물속의 가재와 산새와 닭 개 짐승과 수풀과 나무와 낮하늘의 해와 밤하늘의 별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늙어 병신이 된 이 두 불쌍한 생명을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듯하였다. 그것은 얼마 아니하여 이 두 생명이 무덤 없는 귀신이 될 것을 알은 탓인지도 몰랐다.

새롭게 봄이 왔음에도 노부부는 기척도 없이, 빨리 찾아와 주지 않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새 세상의 도래를 기뻐하는 모든 생명과 자연물이 이 노부부를 귀신인 양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있을 지경이다. 서술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위안과 희열과 희망”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근심과 비애와 절망”(201쪽)에 사로잡힌다고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제시할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빨간 입이었다. 그것은 새빨간 피의 입이었다. 하이얀 이가 그 안으로 비죽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는 영감의 낮이 터져서 하이얀 뼈가 보인다고 할 것이나 그것은 새빨간 피의 입의 하이얀 이빨이었다.”(200쪽)에서 드러나듯 사변적인 서술이 오히려 서술대상인 노부부에 대한 감정 이입을 차단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서술 자체가 또 다른 서술을 불러들이는 부분적인 독자성²³⁾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의 배면에 존재

23) ‘부분의 독자성’ 혹은 ‘장면의 독자성’은 판소리의 미적 원리 중의 하나이다. “판소리를 지배하는 양식적 원리는 이야기 속의 여러 상황이 지닌 의미·정서를 강화 확장하여 부분이나 상황의 독자적인 미와 쾌감을 추구하는 지향”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 김홍규,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88, 116쪽. 백석 문학과 판소리의 연관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피력되었으며, 소설에서도 이와 같은 서술 특성이 드러남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백석 시와 판소리의 관련 양상은 살핀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박혜숙, 『백석 시의 위음 구조와 사설시조와의 관계』, 『중원인문논총』 18,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하는 연민과 공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상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곤궁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포착하고, 그 대상에 내재된 미덕들을 깊은 연민과 공감으로 소환함으로써 삶의 곡진한 애환을 드러내는 것은 백석의 문학 전반의 특성이기도 하다. 시집 『사슴』에 상재된 「모닥불」, 「여승」, 「수라」나 후기 시 가운데 「노루」, 「산숙(山宿)」, 「팔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동화시 가운데에는 「쫓기달래」, 「오징어와 검복」, 「개구리네 한술밥」 등 거의 모든 작품들이 명료한 민중적 형상을 재현하고 있다. 다만 식민지 시기의 시에서 보여주었던 상대적으로 억제된 감정 표현이 동화시와 동시에 이르러서는 한층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대상을 소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뚜렷한 해결로 밀고 나가고 있는 점은 특징적인 변모라고 할 수 있다.

2) 토속어의 소환과 ‘억음’

백석 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단연 토속어의 자유로운 사용에 있다. 「여우난굴죽」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편들에 토속어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토속어의 사용은 소설에서도 다르지 않다. 다만 소설의 경우 대중적인 독자를 지향하는 신문 지면의 특성으로 인해서뿐 아니라 서술의 평이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토속어 사용이 드문 편이다. 그러나 대화 장면에서는 배경의 구체성을 한결 되살린다는 점에서 토속어를 고스란히 제시하고 있다.

동리 우물터에선 이런 소문이 돌기 비롯하였다.

“아-니 데집 대감이 엄매레 좀 다룻티? 바람이 낫대-.”

1998; 고희진, 「백석 시의 ‘억음’의 미학」, 박오준 외, 『현대시의 전통과 창조』, 열화당, 1998; 이경수, 「백석 시의 반복 기법 연구」, 『상허학보』7, 상허학회, 2001; 고희진, 「백석 시와 판소리의 미학」, 『현대문학이론연구』2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

“좀 작히 그리지 안아두 건넌말 경세관 맨 첫 번 장날 장길에서 조루 드래두만.”하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리 어디켓 담당아.” 하고 궁금해서 묻는 이도 있었다.

“경세 고 까쟁이레 제 돈을 색에.” 하면

“날과 그리지 난 안케니 산삼두 사주겟슴메.”

길길대고 흥측한 소리 잘하는 사람의 소리였다. (173-174쪽)

우물터의 아낙네들과 말도리터의 사내들이 주고받는 말 속에서 관서 지방의 사투리가 여과 없이 제시된다. 작품 속 소문의 공동체로 대변되는 민중들의 삶은 이러한 사투리를 통해 한층 뾰족하게 제시된다. 이러한 작품 내적 효과뿐 아니라 일본어와 한국어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던 당대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방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민중적 지향뿐 아니라 민족적 지향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어휘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토속어의 소환과 함께 돋보이는 것은 통사 구성에 있어서 엮음의 미학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엮음이란 “본래는 전통적인 음악의 창법 가운데 하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을 길게 늘어놓는 언어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쓰이며, 이 경우 ‘사설’이란 명칭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²⁴⁾ 이 엮음의 양상은 시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큰일이 났다. 그것은 저척노파가 울음을 멈추기는새로 노파가 영감들과 같이 도리어 그들보다 더 쉼게 울기 시작한 것이다. 노파의 속으로는 여러 노파들이 제각각 설움을 안고 나와서는 퍼더버리고 앉아서 울음을 울기 시작한 것이다. 한없는 설움을 가진 많은 노파들이, 울음은 커졌다. 한세상, 영감 노파의 작은 한세상이 울음이거나 한 듯이, 상처도 노파도 영감도 없고 울음이 있었다. 죄도 설움도 없고 울음이 있었다.

24) 고희진, 『백석 시 바로 읽기』, 현대문학, 2006, 35-38쪽. ‘엮음’과 함께 백석 시에 나타나는 판소리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고희진, 『백석 시와 판소리의 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2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5-26쪽 참조.

해와 같은 울음이, 밤과 같은 울음이, 하늘과 같은 울음이, 땅과 같은 울음이!

이 인용에서 초점은 울음이다. 울음은 주어이자 서술어로 존재한다. 그 울음을 중심으로 통사의 구성은 반복과 변용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마치 서사적 서술이라기보다 시적 진술이나 연극적인 독백에 가까운 짜임이 엮음의 형식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울음을 멈추기는 새로”, “더 쉼게 울기 시작한 것이다”, “울음을 울기 시작한 것이다”로 반복되며 조금씩 변용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울음은 커졌다”를 바탕으로 “울음이거나 한 듯이”가 덧붙여진다. “울음이 있었다” 역시 거듭 반복되고, 해, 밤, 하늘, 땅과 같은 “울음이”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감정의 고조와 지속이 시적인 중첩을 통해 비유적으로 쌓아 올려지고 있다.

아침 영감이 바가지를 들고 일어서는 기색을 챈 노파가 “예구, 그렇게 허리, 허리 아프대면서도 또 어떻게 가겠노” 하면 그때에는 영감이 “눈은 왜 멀었노, 할미 눈만 안 멀었어두 이르틴 안왔디기리.” 하기도, 저녁것이 되어 노파가 부뚜막을 어리쫓어 귀나간 웅주리를 찾아 들고 물 길러 나가는 것을 본 영감이 “가만 있으라구 내 퍼오게.” 하고 일어서며 “앞은 와 못 봐가지구 그르노.” 하고 웅주리를 뺏아 들면 “허니라 좀 쉬디. 쉬라구.” 하고 노파는 돌아서서 부엌문을 찾기도 하는 것이었다. (202쪽)

이 인용에서도 엮음의 양상은 나타난다. 이어지는 문장들은 서사의 진행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화와 지문이 짝을 이룬 채 교차 편집됨으로써 긴 관형절로 수식되는 주어, 대화의 인용, “하기도”, “하고 일어서며”, “찾기도 하는 것이었다” 등으로 동작상을 분절하는 서술어를 나열하는 가운데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백석의 시에 드러나는 엮음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답을 채인 이야기>이다.

그날 밤, 운수 사나운 날 밤 그렇지 않아야 좋았을 일이 모두 그러 하였다. — 디평영감장은 산땡을 잡는 꿈을 꾸었다. 귀머거리 할망구는 허리를 앓느라고 밖으로 나와보지 못했다. 개는 암컷을 다라 집을 비우고 나갔고 썩어진 곱새담은 술이 취한 듯이 반쯤 나가 누웠었다. 또 하나 이날 밤의 모작별은 어느 표독한 사나이의 그림자가 살기에 차서 디평영감장네 담 밑까지 가 멎는 것을 보았다. (204쪽)

닭의 장 안이 이번만은 가만 있지 않았다. 맨 먼저 목은 수탉이 궁글은 소리로 껌득 하고 소리쳤다. 꼬꼬댁 하고 나이 많은 암탉이 동따랐다. 꼴꼴 꼴꼴 하는 것은 병아리를 떨어치고 자던 어미닭들의 소리, 꼬댁 꼴 하고 마는 것은 병든 어느 암탉의 소리 …… 껌껌 껌껌 하고 힘깨나 쓴다고 뽐내던 젊은 수탉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뒤퍼든다. (209쪽)

두 인용은 모두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이 제시된다. “그렇지 않아야 좋았을 일”과 “가만 있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진술이 제시되고, 이어서 디평영감, 할망구, 개, 곱새담, 모작별 등이 나란히 제시된다.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양상들이 반복되며 다채로운 층들을 형성함으로써 의미를 환유적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쌓아올리고 있다. 이는 두 번째 인용에서도 다르지 않다. 수탉, 나이 많은 암탉, 어미닭, 병든 어느 암탉, 젊은 수탉 등의 “가만 있지” 않은 양상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사의 진행을 멈추고 반복과 나열, 동등한 층위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쌓아올리는 방식을 통해 의미를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것은 시적 특성이자 판소리에서 흔히 발견되는 위음의 양상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위음의 장치는 백석 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이다. 『여우난곶죽』을 비롯해 『사슴』에 수록된 많은 시편들이 그러하다. 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승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와 같이 반복과 의미의 확

장, 연결을 분방하게 펼쳐내는 「북방에서」를 비롯해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넙언집 뽕 같은 노끈마니」 같은 수작들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전체적인 시의 구성 자체가 반복과 변형을 주조로 하는 「개구리네 한술밥」과 같은 동화시들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짜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백석 소설에서 드러나는 엮음의 서술방법은 초기 시와 후기 시, 북한에서의 동화시 등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백석 문학의 향존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3) 물화론적인 의인화

앞서 언급한 민중적 삶의 형상화, 토속어의 사용과 ‘엮음’의 미학 등이 백석 문학 전반의 기저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백석의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물화론적인 의인화는 백석의 초기 시, 후기 시에서는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북한에서 활동하던 시기 창작된 동화시와 동시에서 의인화는 단순한 기법을 넘어 작품 전체의 근간을 이룰 만큼 주도적인 장치로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활동 역시 소설을 통해 연결시켜 보면 낮설고 새로운 단층이 아닌 백석문학의 원형질로 존재하던 미적 양상들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백석의 소설에서 사물이나 동식물을 주요한 인물들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인간적인 언어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작품은 특히 <마을의 유화>와 <닭을 채인 이야기>이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는 노부부의 내면 풍경을 그려내는 <마을의 유화>와 닭을 흠쳐내는 전말을 담고 있는 <닭을 채인 이야기>에서 사물이나 동물이 전면에 등장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이들 의인화는 비극적인 상황이나 갈등이 맞부딪히는 상황 그 자체에서 한 걸음 벗어나 다른 시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일종의 ‘소외 효과’²⁵⁾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동물이

25) ‘소외 효과(Effect of Alienation)’는 브레히트의 개념이다. 브레히트는 피스카토르, 중국의 겨극, 일본의 能의 영향과 영화적 기법을 토대로 소외 효과를 핵심적

나 사물의 등장이 공통적으로 상황과 동떨어진 ‘썬’의 장치, ‘장면의 독자성’에서도 확인되듯 서술 자체의 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반면 <그 몸과 아들>에 이와 같은 의인화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과부를 중심으로 한 명확하고 풍부한 서사가 이미 존재하며, 여타의 인물들이 서사에 관여하는 정도 역시 적지 않기에 그러한 장치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상 응모된 작품이기에 제도적 틀에 맞추고자 자유분방한 특성을 드러내기 힘든 점 역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마을의 유화>, <닭을 채인 이야기>의 경우 이미 문학계로의 등단 절차를 거쳤으며 머지않아 <정주성>을 게재하고 이미 『사슴』의 원고를 타고하는 등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예비하고 있었기에 개성있는 문학적 상상력을 실험해 보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마을의 유화>의 경우 사물의 의인화가 두드러진다. 그 양상은 서술자가 인격화된 대상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단순히 인격화된 서술 대상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서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누더기 그것은 추울 근심이 없었다. 영감 노파의 귀와 발이 어는 방 안에서 그것은 귀와 발이 얼 줄을 몰랐다. 영감 노파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때라도 그것은 언제나 사지를 편 눕은 편 채로 꾸부린 눕은 꾸부린 채로 까닥하지 않았다. (191쪽)

취 그것은 배고픈 세상을 몰랐다. 콩을 먹다가는 팔을, 싫어지면 어데 선지 하이얀 입쌀을 날라다 먹었다. 두 늙은이가 끼니를 빼고 굶은 배를 줄라메는 때에도 취들은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었다. (192쪽)

인 개념으로 확립하였다. 브레히트는 관극의 태도에서 관찰과 비판의 거리를 강조하였으며, 거리두기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명인서,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한국적 서사극』,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어문학회, 1994, 545-565쪽 참조.

첫 번째 인용에서 “근심”하고, “얼 줄” 모르는 주체는 누더기이다. “눔”이란 지칭을 통해 인격화된 누더기는 “까닥하지 않”는 존재로 포착된다. 그저 바닥에 놓여 있는 모습을 상태로서가 아니라 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인용에서 사물인 누더기와 달리 동물인 쥐는 인격화가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몰랐다”, “날라다 먹었다”, “잔치를 벌이는” 등의 지각과 행위는 자연스럽게 서술자의 관점으로 의인화되고 있다. 더욱이 서술자는 영감 노파가 이들 누더기와 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누더기와 쥐가 “적어도 영감 노파가 그것인 그 인간보다는 한 층 위에 있는”(192쪽) 존재라고 발화함으로써 비극적인 상황이 풍자적으로 재현된다.

이와 같은 의인화는 작품의 뒤로 이어질수록 강화된다. “작은 문”은 “작은 장난꾸러기”와 다를 바 없이 노파를 우롱하며 바깥에 존재하는 “감감하고 산득산득한 세상” 역시 노파의 “울음을 반겨 맞”는 것으로 인격화된다. 거의 모든 대상들이 배경이나 상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부부를 배척하는 인격화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섬돌’이 있다.

섬돌 - 그것은 영감을 모른 척하였다. 그것까지도 영감을 모른 척하였다. 그것은 그래도 토방에서 마당으로 내려서는 영감을 안아 내려놓은 것이다. 그것은 그래도 마당에서 토방으로 올라서는 영감을 추켜 올려놓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영감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눈을 꼭 지르터 감고 있거나 탄눈을 팔고 있거나 하였다. 그것은 분명히 영감을 나무라거나 원망하는 것이었다. …… 섬돌은 어느 날 종내 영감을 굴러 떨어뜨리고야 말았다. 영감이 불측하고 잔학한 원수에게 갇을 생각을 하였던 잔학하고 불측한 수로 섬돌은 영감을 메다치고 말았다. (197-198쪽)

여기에서도 ‘섬돌’은 주체로 존재한다. 영감을 “모른 척”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라거나 원망하는” 주체이다. 더욱이 영감을

“굴러 떨어뜨리”는 존재이기도 하다. 세상과 대면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배척당하는 노부부는 이들 누더기, 쥐, 작은 문, 섬돌 등의 다채로운 대상들이 직접적으로 배척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물이나 동물을 인격화한 의인화는 <닭을 채인 이야기>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닭장의 닭들과 족제비 등은 정형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마다 자신의 성격들을 지닌 채 서사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소략한 작품의 구조를 풍성하게 바꾸어낸다. “족제비는 간밤에 제가 한 농간이 있으면 그날 새벽에는 디평영감장의 작시밋대가 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참는다. 하나 족제비는 간밤에 동무 따라서 삼 리가 넘는 아랫마을로 갔다가 뉘 집 털통 아래서 텃세 자랑하는 그 고장 족제비하고 한판 대판 싸움을 뜨고 온 것이었다.”(215쪽)라는 서술은 단순히 인격적 시각을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 동화적 상상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백석의 동화시는 이와 같은 소설의 특성이 동화시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개화되는 장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석 문학의 의인화 양상은 초기 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흙꽃 이는 이른 봄의 무연한 별을/ 경편철도가 노새의 맘을 먹고 지나간다// 멀리 바다가 뵈이는/ 가정거장도 없는 별판에서/ 차는 머물고/ 짧은 새악시 둘이 나린다”(『광원』 부분)에서처럼 “노새의 맘을 먹고”, “머물고” 등 의인화된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은 수사의 차원에 머물 뿐이다. 그것은 “짧은 새악시 둘”이 내리는 배경으로 존재하며 시적 화자의 서정을 드러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수라』에서 거미가 등장하지만 이 또한 시적 화자의 심정이 투사되어 표현되는 것이지 본격적인 의인화라 보기는 어렵다. 반면 후기 시에서는 의인화의 양상이 상대적으로 더 분명해 진다. <선우사>에서 ‘흰밥’과 ‘가재미’는 ‘우리’라는 호칭으로 동일시되어 공통된 속성을 바탕으로 서로 정감을 나누기도 한다. <목구>에서는 서술자의 힘을 빌어 단순한 서술 대상이

아니라 “데석님과 친하니 살으면서”처럼 인격화되고, <국수>에서는 “오는 것”으로 주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초기 시와 후기 시의 의인화 양상은 부분적으로 존재할 뿐 전면화되어 있지는 않다.

소설 속에 제시된 의인화된 장치는 동화시에서 확연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집게’, ‘오징어’, ‘검복’, ‘개구리’, ‘너구리’, ‘메기’, ‘가재미’, ‘말뚝굴이’, ‘준치’ 등의 동물들은 우화라는 장치 속에서 전면적으로 인격화된다. 이와 같은 물화론적인 인격화는 유년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문학 작품들의 특성이기도 하며 백석 역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시작²⁶⁾인 <멧돼지>, <산양>, <기린> 등은 동시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갖추고 시적 대상의 관점에 깊이 천착한 면모를 보여준다.

곤히 잠든 나를
깨우지 말라.
하루 온종일
산비탈 감자밭을
다 쭈서 놓았다.

소 없는 어느 집에서
보습 없는 어느 집에서
나를 데려다가
밭을 갈지나 않나!

(〈멧돼지〉, 528쪽)

26) 장정희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된 백석의 동시는 다음과 같다. 「멧돼지」, 「강가루」, 「산양」, 「기린」(『아동문학』, 1957.4.); 「감자」(『평양신문』, 1957.7.19.); 「오리들이 운다」, 「송아지들은 이렇게 잡니다」, 「앞산땡, 뒷산 땡」(『아동문학』, 1960.5.); 「첫 머리에」, 「가금반장 할아버지」, 「잃어진 새끼양」, 「돌아 와서는 왜 우나?」, 「곡간직이 할아버지」, 「무엇을 먹고 있었나?」(『우리 목장』, 1961.); 「나루터」(『아동문학』, 1962.5.); 「석탄이 하는 말」, 「강철장수」, 「사회주의 바다」(『새날의 노래』, 1962.3.) 장정희, 「분단 이후 백석의 동시에 관하여」, 『서정시학』 25(3), 서정시학, 2015, 168쪽.

이 동시는 시적 화자가 멧돼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멧돼지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자신만만한 어조 속에 빠지고 으스대는 어린 아이 같은 면모가 잘 드러나 있어 해학을 자아내기까지 한다. “산비탈 감자밭”을 헤집어 갈아엎은 멧돼지는 잠들 것이니 “깨우지 말라”고 경고한다. “소 없는”, “보습 없는”의 대구²⁷⁾와 함께 자신을 데려가 “갈게 하”기 위해 잠을 깨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짧은 두 연의 동시에서도 백석은 멧돼지를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지각하고 행동하는 의인화된 존재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속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어린 아이다운 발상을 새겨 넣고 있다.

이처럼 동화시와 동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아동문학의 물활론적인 양상이 백석의 초기 문학 활동인 소설 창작에서 발견되고 이후의 아동문학 창작에서 개화된다는 것은 백석 문학의 통일적인 양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4. 백석 초기 소설의 작가론적 의의

백석의 초기 단편 소설은 세 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작품들은 1930년대 단편소설이 이루어낸 미적 성취에 견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결여태로 존재한다. 서술자의 시점이 명확한 위치와 태도 위에 서 있지 않으며 보여주기와 들려주기 또한 미적 의도하에 정교하게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옛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서술 양상, 동화에서 보이는 의인화가 곳곳에 뚜렷한 서사적 연관 없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당대 소설의 장르 규범에 비추어볼 때 이질적이고 낯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27) 백석 시의 특징을 ‘이항대립의 대구 형식’이라고 제시한 이승원의 설명은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승원, 『백석 시 연구의 유의점과 과제』, 『어문연구』 4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200쪽.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소설이란 장르에 입각하여 작품의 미적 가치와 의의를 평가하는 작품론의 관점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백석의 문학 활동 전반을 한 작가의 발전 양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작가론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평가라 볼 수 없다.

백석의 초기 소설은 무엇보다 그의 초기 문학 활동의 소산인 만큼 그 후 전개되는 백석 문학의 원형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백석의 소설들은 민중적 삶에서 미적 대상을 선택하고, 이를 공감에 바탕을 둔 애정으로 어루만진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토속어를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민중적 삶의 현실성을 강화하고, ‘여음’이란 독특한 서술방법을 통해 판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적 표현의 전통을 소설 속에 구현해 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의인화된 인물들을 설정하여 작품의 흥미를 배가한다.

이와 같은 백석 소설의 특성들은 이후의 문학 활동, 곧 초기 시와 후기 시, 북한에서의 아동문학과 시작(詩作) 등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활성화된다. 이에 본고는 다섯 시기로 구획되는 백석의 문학 활동 가운데 삼수로 현지 파견을 나가기 이전까지의 문학적 특성들이 초기 소설 작품들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밝혀보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백석의 문학 활동은 삼수 이전, 아동문학에 집중하던 시기까지를 통일적인 양상으로 파악할 가능성을 지니며 그 이후 외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단층이 생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백석의 문학은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답의 영역들로 남아 있다. 아직도 온전히 복원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삼수에서의 생활과 문학 활동의 실제, 외국문학작품의 번역 활동이 갖는 의미, 백석 고유의 아동문학론과 비평적 논쟁의 특성 등이 보다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다시 그 관련성 속에서 면밀히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백석의 다양한 문학 활동은 이처럼 여전히 많은 연구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가 활동한 식민지시대 후반기와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한문학이

란 시대적인 특징뿐 아니라 외국문학과 아동문학 등 한국문학의 확장된 지형 역시 백석 문학의 후속 연구를 통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외석, 「일제하의 사회 변동과 문학적 대응 - 백석의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배달말』 26호, 배달말학회, 2000, 97-127쪽.
- 강정화, 「해방을 전후로 한 백석 시의 이행 양상 연구: 백석의 번역문 『아동문학론 초』와 동화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3,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1-25쪽.
- 고형진, 「백석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3.
- _____, 「백석 시와 판소리의 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2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5-26쪽.
- _____, 「백석 시에 쓰인 ‘~이다’와 ‘~것이다’ 구문의 시적 효과」, 『한국시학연구』 14, 한국시학회, 2005, 125-152쪽.
- _____, 『백석 시 바로 읽기』, 서울:현대문학, 2006.
- _____, 『정본 백석 시집』, 경기:문학동네, 2007.
- _____, 「백석의 소설과 수필의 판본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83-128쪽.
- 김문주, 「백석 문학 연구의 현황과 문학사적 균열의 지점」, 『비평문학』 45, 한국비평문학회, 2012, 81-109쪽.
- 김수경·이경수, 「백석 시 「고야」에 나타난 설화적 특성」, 『어문논집』 45, 중앙어문학회, 2010, 379-400쪽.
- 김재용, 『백석전집』(개정증보판), 서울:실천문학사, 2011.
- 김제곤, 「백석의 아동문학연구 - 미발굴 작품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4,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7, 71-98쪽.
- 김진희, 「시인 존재론의 탐구에서 동화시에 이르는 길」,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41-67쪽.
- 김흥규, 『판소리의 이해』, 경기:창작과비평사, 1988.
- 남지현, 「백석 소설 「그 모와 아들」 연구」, 『현대소설연구』 69, 한국현대

- 소설학회, 2018, 139-164쪽.
- 명인서,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한국적 서사극」,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어문학회, 1994, 545-565쪽.
- 박명옥, 「백석의 동화시 연구 : 북한의 문예정책과 아동문학 논쟁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8,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107-134쪽.
- 박오준 외, 『현대시의 전통과 창조』, 열화당, 1998, 213-230쪽.
- 박혜숙, 「백석 시의 엮임구조와 사설시조와의 관계」, 『중원인문논총』 18,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1998, 27-41쪽.
- 배대화, 「백석의 푸시킨 번역시 연구」, 『슬라브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53-99쪽.
- , 「백석의 러시아 문학 번역에 관한 소고 : 남·북한의 평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31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35-55쪽.
- 송기섭, 「백석의 산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9, 265-285쪽.
- 신기훈, 「백석의 동화시 연구」, 『문화와 융합』 20, 문학과언어연구회, 1998, 209-240쪽.
- 안도현, 『백석 평전』, 경기:다산책방, 2014.
- 이경수, 「백석 시의 반복 기법 연구」, 『상허학보』 7, 상허학회, 2001, 347-381쪽.
- , 「마르샤크의 『동화시집』 번역을 통해 본 『집게네 네 형제』 창작의 의미」, 『비교한국학』 23(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179-211쪽.
- 이동순, 「백석 시의 연구 쟁점과 왜곡 사실 바로잡기」, 『실천문학』 여름호, 실천문학사, 2004, 329-363쪽.
- 이명찬, 「백석 시집 『사슴』의 시편을 읽는 또 하나의 방법」,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69-97쪽.

- 이상숙, 「북한 문학 속의 백석 1」, 『한국근대문학연구』 17, 한국근대문학
회, 2008, 65-103쪽.
- , 「백석 번역시 연구를 위한 시론 : 북한 문학 속의 백석Ⅲ」, 『비
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33-62쪽
- , 「백석의 번역 작품 「자랑」, 「숨박꼭질」 연구 : 북한문학 속의 백
석Ⅳ」, 『한국근대문학연구』 27호, 한국근대문학회, 2013, 99-154
쪽
- 이승원,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서울:삼지원, 1985.
- , 「백석 시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99-132쪽.
- , 「백석 시 연구의 유의점과 과제」, 『어문연구』 44(2),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16, 187-211쪽.
- 이혜원, 「백석 시집 『사슴』에 나타난 행과 연의 양상과 기능」, 『한국시
학연구』 85, 한국시학회, 2012, 293-318쪽.
- 장정희, 「분단 이후 백석의 동시에 관하여」, 『서정시학』 25(3), 서정시학,
2015, 166-189쪽.
- 정선태, 「백석의 번역시」, 『근대서지』 2, 근대서지학회, 2010, 337-363쪽.
- 채해숙, 「백석 동화시에 나타난 전통의 계승과 변용」, 『한국말글학』 25,
한국말글학회, 2008, 151-170쪽.
- 최두석, 「1930년대 시의 표현에 관한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 한명환, 「백석 소설 연구 - 소설 내용 및 형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
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2001, 291-317쪽.
- 한예찬, 「백석 시에 나타난 동심과 설화성 연구」, 『동화와 번역』 21, 건
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1, 411-429쪽.

<Abstract>

A Study on the Archetypal Characteristics of Baekseok Literature in Baekseok's Early short stories

Nam, Ji-Hyun*

The study of the overall literary activity of Baek-seok is not exaggerated in its reference to the Renaissance of Baek-seok research. However, research into Baek-seok's short stories, which is one of the earliest activities, is remarkably insufficient. These short stories are due to the simplicity customary among the author's early short stories. However, the study of works can be accessed not only from the point of view of aesthetic qualities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artists, and Baek-Seok's short stories ar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Baek-seok literature.

The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in three books. Baek-seok's short story, "The Mother and the son", "Story from the village" and "The story of chicken stealer" and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are linked to those of Baekseok. Baek-seok's short stories highlight the love they have based on sympathy after choosing an aesthetic object from popular life. They also want to preserve their original human lives without being drawn into orthodoxy ideologies. Using the mother-tongue abundantly, it strengthens the reality of popular life, expresses the tradition of

* Korea University

pansori and other literary expressions through a unique way of writing. They also doubled the interest in the work by setting up person who is personified.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Baek-seok short stories are reinvigorated, linking wholly or partially to subsequent literary activities, such as poetry and poetry, and children's literature in North Korea. This study thus revealed that out of the literary activities of Baek-seok, divided into five periods, literary traits were already inherent in early novels before being dispatched to the region. As a conclusion, Baek-seok's literary activities should be identified in a unified way until the 4th period except the poets for children literature in Sam-su after 1959.

Key Words: Baek-seok, Baek-seok's short stories, Baek-seok's literature, "The Mother and the son", "Story from the village", "The story of chicken stealer"

■ 논문접수 : 2018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7일

■ 게재확정 : 2018년 4월 16일

